

조기 영어 교육 관련 논쟁: 이론, 현황 및 방향성*

이하원 · 채희락**

(성균관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Lee, Ha Won & Chae, Hee-Rahk. 2011. Controversies over Early English Education: Theories, the Present State and Direction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9(3). 251-273.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age variable is as important as is generally assumed in learning English. In addition, it explores the reasons why previous studies regarding early English education (EEE) are sharply divided into two opposite groups: those for EEE and those against EEE. After examining a variety of studies on Critical Period Hypothesis,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hypothesis does not hold in learning the second language. That is, we can say that early exposure to English itself does not have a special advantage in learning the language, especially in a place of an EFL context. We would have to focus more on such variables as the degree of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 amount and intensity of exposure to the input language. The sharp divisions of research results are caused by research focus differences, uncontrolled samples, mixing of ESL and EFL situations, and errors in research methods.

Key Words: early English education, Critical Period Hypothesis,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1. 도입

지금 우리 사회는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시기보다 고조되어 있다. 영어 조기 교육이 이런 큰 관심을 끌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언어는 일찍 배우면 배울수록 효

* 본 연구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과제로 실시된 노용균 외 (2010)와 더불어 실시되었으며 초기 내용은 2009년 12월 11일 제3회 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조기 영어 교육의 선행 연구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되었다. 이 논문은 그 발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채희락은 2011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본 논문을 완성하였다.

** 이하원: 제1 저자, 채희락: 교신 저자

과적이며 특정 시기를 지나면 배우기 어렵다는 “결정적 시기 가설”의 영향이다.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이런 고조된 관심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어린 시기에 영어를 배우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에 대한 시기/연령의 문제이다. 둘째는 선행 연구 결과가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해 찬성과 반대라는 일치되지 않은 결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연 언어를 배우는 시기가 외국어 습득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지 살펴 보는 것과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가 상반된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같은 고찰은 조기 영어 교육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가 외국어로 쓰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결정적 시기 가설이 유의한지 그리고 왜 기존 연구들이 상반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먼저 2장에서는 습득 시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결정적 시기 가설을 모국어 습득과 제2 언어 습득으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들에서 찬성과 반대라는 양극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2, 3장의 내용을 기초로 추후 한국의 조기 영어 교육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결정적 시기 가설

“결정적 시기 (Critical Period)”라는 것은 아동 발달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단계로서 환경적 자극에 특별한 민감성을 보이는 시기를 말한다.¹⁾ 언어 습득에서도 이와 같은 시기가 있다는 가설이 “결정적 시기 가설 (Critical Period Hypothesis: CPH)”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언어는 결정적 시기가 끝나기 전에 배워야 하며 그 시기를 지나면 배우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매우 어렵다고 한다. 이 장에서는 결정적 시기 가설을 모국어 습득과 제2 언어 습득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노출 시기가 언어 습득, 특히 제2 언어 습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1. 모국어 습득과 결정적 시기 가설

결정적 시기 가설을 설명하기 전에 모국어 습득 관련 논점들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자.

1) “The critical period refers to a temporal span, early in life, of heightened sensitivity to environmental stimulus. The phenomenon is physiological in nature and involves changes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during the course of development” (Montrul, 2008, p. 10).

모국어 습득에 대한 이론은 크게 “생득주의 (nativism)”이론과 “경험주의 (empiricism)”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선천적으로 언어 습득을 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가설(“innateness hypothesis”)에 바탕을 둔 것으로 Chomsky의 등장으로 크게 부각이 되었다 (Chomsky, 1981; Pinker, 1991; Crain & Thornton, 1998; Guasti, 2002 등). 후자는 언어 능력이 학습의 결과라는 가설(“learning hypothesis”)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언어 능력을 일반 인지 능력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인지 능력은 타고 나는 것이지만 언어 능력 자체를 선천적인 독립 모듈로 보지는 않는다 (Tomasello & Bates, 2001; O’Grady, 2010 등). 최근에는 일반적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경험에 의해 언어를 습득한다는 경험주의적 견해가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언어 습득은 “생물학적 요인(biological pressures)”과 환경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는 “창발 이론 (Emergentist Theory/Emergentism)”이 주목할 만한 이론으로 생각된다 (O’Grady 1999, 2003; MacWhinney 1999).

모국어 습득이 이루어 질 때 결정적 시기가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결정적 시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을 대상으로 결정적 시기 가설을 증명하고자 하려면 해당 아동에게는 결정적 시기 이후에만 언어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실험으로 인해 그 아동의 언어 발달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그 아동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실험자 윤리에도 위배된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다가 이후 발견된 “야생/늑대 인간”, Genie, Isabelle 및 선천적인 청각 장애 사례 등을 통해 간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있다.

Genie는 태어날 때부터 외부와의 접촉 없이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다가 14세 때 발견되었다 (Curtiss, 1977). 발견된 후 언어 전문가들로부터 집중적인 언어 교육을 받았지만 정상적인 수준의 문법을 구사하지 못했는데, 언어 발달이 지능 발달보다 더 지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Isabelle의 경우는 말하기와 듣기에 문제가 있는 부모 밑에서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때에 언어 전문가들로부터 언어 교육을 받은 후 동일 연령의 일반 아동만큼의 언어 수준을 보였다고 한다 (Brown, 1958).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 두 사례에서 나타난 연령의 차이를 모국어 습득에 작용을 하는 결정적 시기의 증거로 보고 있다. 물론, 이 사례들에 대해서도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낮은 지능 혹은 정서적 문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Isabelle은 결정적 시기가 끝나기 전에 언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말을 배울 수 있었고 Genie는 그 이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말을 배울 수 없었다는 사례로 인용된다.

선천적 청각 장애자인 Chelsea의 사례도 결정적 시기 가설로 설명되고 있다. 그의 구어

2) 두 사례에서 언어 노출 시기 이외에 성장 환경 차이도 있었다. Genie는 학대 받는 결핍가정 환경에서 성장했고 Isabelle은 부모가 정상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 이외는 특별한 환경적인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언어 노출 시기 외에 성장 환경의 차이도 그들의 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한다.

능력 문제를 사람들은 지적 장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31세가 되었을 때 그가 모국어를 습득하지 못한 이유가 청각 장애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 졌다 (Curtiss, 1988). 그 후 훈련에 의해 어휘는 습득할 수 있었지만 통사 능력은 3세 정도의 능력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다른 사례로, Newport (1990)는 미국 수화 (American Sign Language: ASL) 학습자 농아들을 수화 노출 시기를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3세 이전에 노출된 그룹, 4-6세에 노출된 그룹, 12세 이후에 노출된 그룹. 이들은 모두 30년 이상 ASL에 노출된 사람들이었다. 연구 결과 그룹별로 어순 습득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형태소 습득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수화에 노출된 사람이 나중에 노출된 사람들보다 더 완전한 형태론적 능력을 보였다고 한다. 이런 사례들도 특정 나이를 중심으로 그 이전에 언어에 노출이 되어야 모국어를 정상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결정적 시기 가설을 지지할 만한 증거로 생각될 수 있다.

2.2 제2 언어 습득과 결정적 시기 가설

단일어 환경에서 어린이는 3-4세 정도면 기본적인 문법을 습득하여 모국어 (L1) 화자의 직관적인 언어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O'Grady, 1997; Crain & Lillo-Martin, 1999; Guasti, 2002; Snyder, 2007; cf. Montrul, 2008, pp. 4-5). 어린이의 이런 L1 습득과 (어른의) 제2 언어 (L2) 습득/학습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Montrul, 2008, pp. 5-6). 먼저, L1 습득의 결과는 누구나 비슷하지만 L2 습득의 결과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L2 습득에서는 L1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차이가 나는 기본적인 이유는 언어에 노출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국어는 태어나서 바로 접하게 되지만 제2 언어는 그 이후에 노출되는데, 이렇게 노출 시기가 언어 습득 차이를 유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가정이 결정적 시기 가설의 핵심이다.

결정적 시기 가설은 Penfield (1953)와 Penfield & Roberts (1959) 및 Lenneberg (1967)에 의해 모국어 습득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로 제시된 것인데, 그 후 제2 언어 습득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확대 적용되어 오고 있다. 이 가설에 의하면, 모국어는 6세 정도 이전에 습득이 되어야 하며 사춘기를 지나면 외국어조차 배울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본다 (Pinker, 1994, p. 298).

이 절에서는 제2 언어 습득 또는 학습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면서 제2 언어 습득과 결정적 시기 가설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한다.³⁾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3) Montrul (2008, pp. 18-19)은 "Sequential bilingual acquisition: L2 acquisition"을 "Early: child L2 acquisition"과 "Late: adult L2 acquisition"으로 나누고 전자를 다시 "Early child L2

결정적 시기 가설이 우리나라와 같은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도 모국어 습득이나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⁴⁾ 환경에서처럼 잘 들어맞는지 비판적인 안목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외의 결정적 시기 가설에 대한 연구물을 평가할 때는 무엇보다 해당 연구가 어떤 환경에 있는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연구 대상이 모국어 (L1) 습득자일 수도 있으며 제2 언어 (L2) 습득자일 수도 있다. 또 후자는 ESL 환경에 있는 대상일 수도 있고 EFL 환경에 있는 대상일 수도 있다.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L2 습득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ESL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EFL 환경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우리가 영어 교육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EFL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외국어, 즉 L2 습득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 방향에서는 L2 습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모국어와 해당 외국어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또 다른 방향에서는 언어의 어떤 측면이 성장 과정상의 시기에 따른 제약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 내려고 노력한다. 본고에서 관심 있는 주제인 결정적 시기 가설은 이 두 번째 방향의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 결정적 시기 가설이 L2 습득도 사춘기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그 이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견해를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렇지만 해당 언어에 노출되는 시기가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L1 습득의 경우보다는 대체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L2 습득에서 시기가 L1의 경우에서보다 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 첫째, 사춘기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해도 모국어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Montrul & Slabakova (2003)에 따르면 사춘기 이후에 외국어를 처음으로 배운 실험 대상자들의 30% 정도가 모국어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찍부터 결정적 시기 가설(CPH)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cf. “a weak version

acquisition (4-6: pre-school)”과 “Late child L2 acquisition (7-12: elementary school)”으로 나누고 있다. 이런 분류로 보았을 때, 후기/성인 L2 습득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이 있으나 4-11세의 조기 L2 습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별로 없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성인 L2 습득에 대한 개관적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Long, 1990, 2007; Singleton & Lengyel, 1995; Harley & Wang, 1997; Birdsong, 1999, 2006; Herschensohn, 2000, 2007; Hyltenstam & Abrahamsson, 2003; Bongaerts, 2005; DeKeyser & Larson-Hall, 2005; Singleton & Ryan, 2005 (cf. Montrul, 2008, p. 43).

- 4) EFL은 외국어로서의 영어로서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처럼 교실 바깥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영어를 말한다. 이와 반면에 ESL은 미국이나 호주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교실에서 학습 목표로 삼은 언어가 교실 밖에서도 사용 가능한 환경의 영어를 지칭한다 (Brown, 2007).

of CPH”: Krashen 1975). 둘째, Mayberry & Lock (2003) 등 많은 연구물에서 밝혀졌듯이 L2 습득의 일부 측면은 시기에 영향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음과 통사적인 현상은 시기에 민감하고 의미적인 현상은 나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습득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2 습득에서 노출 시기가 중요하다는 가장 강한 증거는 발음 습득에서 찾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Oyama, 1978; Patkowski, 1980; Scovel, 1988; Baker, 2006 등). Scovel (1988)은 발음 영역에서만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고 Johnson & Newport (1989)는 형태-통사 영역에서도 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어와 한국어 모국어 화자인 미국 이민자 4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 이민자들은 3세와 39세 사이에 미국에 도착하였는데, 미국 도착 나이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하였다 (3-7세, 8-10세, 11-15세, 17-39세 그룹). 형태-통사적 문법 테스트 결과 그 성적이 도착 나이와 반비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결정적 시기가 L2의 문법 습득에서 작용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연구가 ESL 환경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도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결정적 시기 가설의 핵심적 증거로 보고 있는 발음 습득 현상에서도 노출 시기의 효과가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Bongaerts et al., 1995; Moyer, 1999; Young-Scholten, 2002). 다음으로, 위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었지만, 사춘기 이후에 L2를 접했어도 모국어 화자 (비슷한) 수준의 언어 습득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다 (White & Genesee, 1996; Bialystok, 1997; Bongaerts et al., 1997; Birdsong & Molis, 2001; Montrul & Slabakova, 2003; Baker, 2006). Bongaerts et al. (1997)에서는 18세 이후에 영어를 배운 11인의 네덜란드인 중 6명이 모국어 화자나 그 이상 수준의 발음을 구사했다고 한다. 그리고 Birdsong & Molis (2001)은 위에서 살펴 본 Johnson & Newport (1989)의 연구 결과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님을 제시하고 있다. 사춘기 이후에 미국에 온 32명의 스페인어 모국어 화자 중에서 13명이 모국어 화자에 가까운 영어 실력을 보였다고 한다.

L2 습득에서 노출 시기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물과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물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결정적 시기 가설과 관련 현상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왔다 (Eubank & Gregg, 1999; Flege, 1999; Moyer, 1999; DeKeyser, 2000; Robertson, 2002; Schouten, 2009). L2 습득을 결정짓는 요소로 시기 이외의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⁵⁾ Moyer (1999)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회심리적 요인들도 고려

5) Montrul (2008, p. 50)에 의하면, 나이가 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나이는 일종의 “포괄변수(macro-variable)”이기 때문에 다른 공존 변수들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나이 관련 현상은 실제로는 다른 요인들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고 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습자 동기 (learner motivation), 문화 동화성(cultural empathy),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산출하고자 하는 욕구 (desire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입력 양과 유형 (type/amount of input). 또한 Robertson (2002)은 시기보다 “개인적 동기 (personal motivation), 두려움 (anxiety),⁶⁾ 입력과 출력 능력 (input and output skills), 학습 환경과 시간 투자 정도 (settings and time commitment)” 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DeKeyser (2000)은 “암묵적 학습 장치 (implicit learning mechanisms)”는 결정적 시기의 영향을 받지만 이 장치가 사라져도 “높은 언어적 기질/능력(high verbal aptitude/ability)”이 있으면 사춘기 이후에도 충분히 제2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물을 종합해 보면, L2 습득에서 습득 시기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Montrul (2008, pp. 57-59) 또한, 이전의 여러 연구물을 검토한 결과를 중심으로, L2 언어 습득 능력이 사라지거나 급격히 저하되는 특정 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런 결론이 주로 ESL 환경에서 수행된 연구물을 바탕으로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ESL 환경에 있는 지역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습 시기가 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습득 시기 관련 결과물을 우리의 조기 영어교육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선행 연구의 문제점: 국내 상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그에 대한 찬반 논란 또한 뜨겁다. 긍정적 사례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사례 또한 많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들이 겉으로 보이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만으로 영어 조기 교육의 효과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섹션에서는 그 이유를 선행 연구물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방법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적한다: “different environmental input factors and frequency of use of the L1 and L2” (Bialystok & Hakuta, 1999; Bialystok & Miller, 1999; Flege, Yeni-Komshian & Liu, 1999; Jia & Aaronson, 1999), “maturation and decay of cognitive abilities related to aging” (Bialystok & Hakuta, 1999), “socio-affective factors” (Gardner & Lambert, 1972; Krashen, 1981).

- 6) “두려움(anxiety)”이란 낯선 언어를 외국인에게 산출해야 하는 상황적 두려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연령이 낮은 아동이 연령이 높은 아동에 비해 유연한 언어 자아를 보유하고 있어서 실수 혹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고 한다 (Baker, 2006).

먼저 조기 영어 교육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중 언어 아동이 단일 언어 아동에 비해 음성/음운 영역, 상위 인지, 유전적 사고 등에서 보다 우수한 능력을 보이며 (박민영, 2006; Bain, 1996; Bialystock, 1991; Baker, 2006), 이와 같은 장점들이 취학 전 시기에도 발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Daiz et al., 1991; Campbell & Sais, 1995).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미취학 시기에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i) 모어 멸실 (attrition) 혹은 손실 (loss) (Gathercole, 2002; Goldstein, 2006), 말더듬 (이수복 외, 2007)⁷⁾ 등의 언어적 문제, ii) 선택적 함묵 (Guo, 2005), 비디오 증후군, 과잉학습 장애 등의 발달 병리적 문제 (신의진, 2002), 그리고 iii) 언어 문제로 인한 가족 관계에서의 문제 (Wong-Fillmore, 1991).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2007년 9월 26일자 한국일보 라제기 기자가 쓴 다음 제목의 기사 내용을 들 수 있다. “억지로 English ... 아이는 영어 거부증: 원어민 강의 부적응 이상 행동도 ... 학원 다니는 유아 절반이 심한 스트레스”⁸⁾ 이 기사에서는 성남과 인천의 두 사례를 들고 있다. 성남의 김주연 (가명) 아동은 100% 영어로 진행되는 원어민 학원에서 하루 4시간 영어 놀이와 학습을 하였다. 주연양은 6개월 후 학원 거부증을 나타냈으며 TV에 나오는 영어 노래만 들어도 소리를 지르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인천의 이종웅 (가명, 8세) 아동은 사립 초등학교 입학 후 영어 실력이 뒤쳐져 원어민 영어 학원에 다녔다. 영어 학원을 다닌 종웅군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으며 영어를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 등의 영어 거부증을 보였다.

2008년 유아 영어 교육 정보 사이트 “쑥쑥닷컴”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어 학원을 다니게 한 부모의 자녀들 가운데 48.7%가 영어 거부증을 보였다고 한다.⁹⁾ 보고된 사례에는

7) 이수복 외 (2007)은 4-6세 이중 언어 아동 14명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영어 발화 상황에서 총비유창성 빈도 및 유형별 빈도를 산출하여 단일 언어 아동 자료와 비교한 연구이다. 연구 표본은 총 28명이었고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 아동 14명, 생활 연령을 일치시킨 한국어 단일 언어 아동 14명), 놀이 상황 및 과제 상황에서 총비유창성 빈도와 비유창성 유형을 살펴 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총비유창성 평균 빈도는 단일 언어 아동보다 이중 언어 아동이 3배 이상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정상적 비유창성 빈도 역시 이중 언어 아동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유형별로는 간투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놀이 상황보다 과제 상황에서 비유창성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이중 언어 아동의 두 언어 중 우세 언어, 비우세 언어에 따라 말더듬이 달라지는지를 살펴 본 결과 비우세 언어에서 비유창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우세 언어에서도 비유창성이 정상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유창성 유형에서는 우세 언어, 비우세 언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정상적 비유창성인 간투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표현 언어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비유창성 빈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생활 연령과 제2 언어 노출 연령이 어릴수록 비유창성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중 언어 아동의 경우 단일 언어 아동보다 비유창성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 이중 언어 아동의 경우 비우세 언어의 비유창성이 우세 언어보다 높은 것을 볼 때 언어 능력이 비유창성 정도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8) 출처: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709/h2007092619242022020.htm>

학원 갈 시간에 배가 아프다고 말하는 신체화 증상 (psychosomatic syndrome), 교사가 때렸다는 거짓말을 하는 행위,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발을 구르는 등의 이상 현상들이 있다. 위와 같은 증상과 관련하여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홍성도 교수는 영어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 불안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 불안증이 결국 이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YBM/ECC 수석 연구원 임미리씨는 “스파르타식 영어 교육에 시달린 나머지 원형 탈모증을 보이거나 아토피가 보다 심해지는 아이들이 많다”고 보고하였다¹⁰⁾.

물론 위 내용은 학자들에 의해 정량화된 연구 결과가 아니라 개별 사례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가지고 조기 영어 교육의 찬반 자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기초로 선행 연구들이 조기 영어 교육의 찬반으로 양극화되는 이유 중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조기 영어 교육에서 어떤 측면에 강조점을 두어 기술했는지에 따라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로 나뉘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육 효과, 인지적 유능성 측면 등을 강조하는 경우는 조기 영어 교육을 찬성하는 반면 (Bialystock, 1991; Bain, 1996; Baker, 2006; 박민영, 2006), 교육 비용과 정신 병리적인 부작용 등에 초점을 두는 경우는 조기 영어 교육을 반대하고 있다 (Wong-Fillmore, 1991; Gathercole, 2002; 신의진, 2002; 우남희, 2002; Guo, 2005; Goldstein, 2006; 이수복 외, 2007). 그러므로 조기 영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들의 찬반 양극화는 연구자의 초점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집된 아동의 다양한 배경을 통칭하여 “이중 언어 아동”으로 명명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하원, 2008). 선행 연구에서는 조기 영어 교육을 받은 아동들을 그들의 복잡한 언어적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통칭하여 이중 언어 아동 혹은 조기 영어 교육을 받은 아동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 교육을 받은 대상 표본들은 그들의 배경에 따라 매우 세분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언어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가지 기능 모두에서 영어가 모국어만큼 유창함을 보이는 아동들로부터 (“최대론자”의 정의) 네 가지 언어 기능 중 한 영역만 제2 언어 산출이 가능한 아동들까지 (“최소론자”의 견해) 언어 유능성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영어를 습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3세 이전에 두 가지 언어에 모두 노출된 “동시 습득” 이중 언어 아동으로부터 모국어를 습득한 이후 3세가 지나서 제2 언어를 학습하게 된 “연속 습득” 이중 언어 아동까지 매우 다양하다 (Goldstein, 2006). 그 뿐만 아니라, 영어를 접한 방식에 따라서도 조기 유학, 전일제 영어 학원, 학습지, “엄마표” 영어, 일반 유치원의 특별 수업 등 습득 환경이 다양하다. 이와 같이 이중 언어 아동이라는 간단한 용어 아래 언어 유능성 정도, 습득 시기 그리고 습득 방법을 기준으로 매우 다양한 배경의 아동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위와 같이 언제, 어떤 환경에서 두 가지 언어를 접하게 되었는지에

9)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6/23/2006062370056.html

10) 출처: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709/h2007092619242022020.htm>

따라 아동들의 언어 발달 형태는 매우 다양해 진다는 것이다 (Person, Fernandez & Oller, 1995). 따라서 혼재된 배경을 가진 연구 표본들을 이중 언어 아동으로 묶어서 연구했을 때는 타당한 연구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외국의 연구 결과를 국내 연구와 비교하여 조기 영어 교육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견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외국의 연구 결과는 대부분 미국에 이민 간 서반아어계 아동들을 대상 표본으로 한 것으로 영어와 서반아어를 습득하는 아동들로 그 표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어와 서반아어는 비슷한 어족일 뿐만 아니라 알파벳이라는 표기 방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유사성이 상호 긍정적인 전이 현상을 나타 낼 수 있다 (Christina, 2002).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아동들을 주 표본으로 삼는다. 한국어와 영어는 교착어와 굴절어로 각각의 유형이 다르며 철자 체계도 다르다. 또한, 국내 연구와 비교되고 있는 영어, 서반아어 연구들은 ESL 환경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반면 국내 연구는 EFL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연구 결과들은 참조 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 한국의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조기 영어 교육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들은 측정 방법상의 오류를 보이고 있다. 그 오류는 현재 영어와 서반아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어휘력 검사 도구”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이중 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가 없다는 데에 기인한다 (임동선, 2001).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들은 모두 단일 언어 아동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이중 언어 아동들에게 이런 단일 언어 아동을 위한 검사 도구를 사용할 경우 그 결과를 완전하게 신뢰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 집단과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하는 집단을 비교 분석하는 실험 연구에서 두 집단의 통제 수단으로 지능 검사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검사 도구 역시 이중 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것이 아니다. 물론,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 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검사 도구가 현재 없기 때문에 선행 연구 자체를 잘못 된 연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결과가 정확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중 언어 아동과 한국어만을 사용하는 단일 언어 아동의 언어 발달을 비교하는 연구 방식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중 언어 아동은 두 명의 단일 언어 아동들의 합산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중 언어 아동은 이중 언어 아동만의 독특한 언어 발달 형태가 있으며 단일 언어 아동은 단일 언어 아동만의 언어 발달 경로가 있다. 그러므로 두 집단 간의 비교는, 단일 언어와 이중 언어 아동들의 언어가 각각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보여 주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지만, 한 집단을 기준으로 다른 집단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예를 들어, 단일 언어 아동을 기준으로 이중 언어 아동의 언어 발달이 지연 혹은 보다 발달된 형태를 보인다는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는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중 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이 여러 가지 이유

로 그 결과가 일치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기 영어 교육 관련 연구들에서 우선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 어떤 측면인가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것만 아니라 연구 방법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 결과를 신뢰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4. 조기 영어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우리는 위에서 L2 습득에서 습득 시기 자체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중 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의 결과물도 신뢰하기 어려움을 보았다. 이 장에서는 습득 시기가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추후 한국의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를 노출 시작 시기와 이중 언어 대상자들을 연구할 때 주의해야 하는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 살펴 볼 것이다.

4.1 학습 연령 관련 제인

외국어 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은 학습자, 학습 내용 그리고 학습 환경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습자 변인에 해당하는 연령, 즉 해당 언어에 노출되는 시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어린 나이일수록 영어를 쉽게 배운다는 생각에 초점이 놓여 있다. 이런 현상은 언어 발달만큼은 아동이 성인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 즉 결정적 시기 가설에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이 실증적 증거 없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조기 영어 교육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연구들은 연구 표본으로 영어권으로 이민을 가거나 조기 유학을 통해 영어를 습득하는 ESL 환경의 대상자를 사용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EFL 환경에서는 조기 영어 교육을 받은 학습자가 이후 어떠한 언어 발달을 이루었는지를 밝힌 중단연구가 없다 (우남희 김현신, 2004; 이병민, 2004).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EFL 환경에서는 전일제 영어 학원과 같은 곳에서 조기에 몰입 교육을 받아 “균형 잡힌 이중 언어자 (balanced bilingualist)”가 되었다 하더라도 취학 후 몰입 교육 환경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언어의 유창성이 지속되기란 어려울 것이다 (이병민, 2004).

2.2절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발음의 경우에 어린 연령의 아동들이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매우 독특한 음성, 음운론적 특질을 쉽게 습득하며 유연한 “언어 자아 (language ego)”를 가지고 있어서 실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성인보다 적다는 Baker (2006)의 연구 결과가 있지만, 어린 나이의 아동들도 언어 실수에 충분히 예민할 수 있으며 (예: 영어 거부증) 연령이 낮은 학습자들이 제2 언어 학습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Singleton & Ryan, 2004).

오히려 연령이 높은 아동 혹은 성인들의 경우 어린 연령의 아동들에 비해서 기억력, 사고 능력 및 분석력 등에서 더 발달되고 안정된 형태의 인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2 언어를 학습하는 시간의 양을 고려해 보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하겠다. 특히, 기억력의 경우 외국어가 장기 저장소로 입력될 때 명시표상과 암시표상으로 입력된다. 명시표상은 사건과 정보 등에 대한 의식적, 의도적 지식 표상으로서 (이정모 외, 1999), 언어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며 (Brown, 2007)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이라 할 수 있다 (Bialystock, 1982). 반면에 암시표상은 행위, 기술 및 조작에 관한 기억으로 자각 혹은 의식 없이 정보가 인출되는 기억 형태이기 (김정오, 2001) 때문에 분석되지 않는 지식이며 의식되지 않는 지식이라 할 수 있다 (Brown, 2007). 이 중 명시표상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 (박영아, 2010). 특히, 시연 정교화 조직화 등 명시적 표상을 향상시키는 전략들은 학습자들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즉,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발달된 기억 전략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EFL 환경 즉, 의식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환경에서는 영어 습득시 명시적 표상이 요구되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아동들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기술로 영어, 한국어, 서반아어, 독일어, 터키어, 히브리어, 크로아티아어, 이탈리아어, 중국어를 사용하는 조기 영어 학습자와 후기 영어 학습자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도 (Kim et al., 1997), 이해 영역을 담당하는 베르니케 부위에서는 언어적 유능성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우남희 김현신, 2004; Baker, 2006). 물론, 이들의 실험에서 3세 이전에 외국어에 노출이 되어 조기에 영어를 학습한 자들이 후기 학습자들에 비해서 표현 언어 측정시 두 언어간 뇌 활성화 위치가 더 인접해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언어 유능성에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기 학습자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제2 언어, 제3 언어를 유창하게 습득하는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 (Baker, 2006). 국내 fMRI 연구에서도 Kim et al. (1997)과 유사하게 조기 학습자들을 후기 학습자들과 비교할 때 두 언어 발화 산출에서 조기 학습자들의 뇌 활성화 인접도가 더 가까웠지만 유창성에는 차이는 없었다 (이승복 외, 2004).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조기에 영어 교육을 받으면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언어 유창성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제2 언어를 학습하는 시작 시기 자체는 영어 능숙도와 관련이 없음을 시사하며, 조기 이중 언어 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학습자들에게 영어를 좀 더 일찍 접했다는 정도의 문제이지 학습 속도 즉, 효율성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의 영어 교육 현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변인은 연령보다는 다른 학습자 요인이나 학습 내용 및 교사의 질 등의 학습 환경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EFL 환경에서 연령이 아니라 제2 언어 학습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자. 우남희, 김현신 (2004)에서는 만4세와 만7세 아동 23명을 대상으로 조기

영어 학습과 연령, 지능 그리고 보존 개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r=.73, p<.01$), 보존 개념이 발달될수록 ($r=.78, p<.01$) 높은 영어 학습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안정된 보존 개념을 형성할수록 향상된 영어 능숙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존 개념은 6, 7세에서 12, 13세에 해당하는 구체적 조작기 시기의 아동들에게 형성되는 인지 개념이기 때문에 보존 개념만을 기초로 조기 영어 교육의 시작 시기를 잡는다면 6, 7세 이후가 좋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보존 개념이 “탈중심화”와 “가역적 사고”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어를 학습하는 아동들이 언어는 달라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원리가 유의하게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남희 김현신 2004). “탈중심화”란 인지적인 활동에서 한 측면에만 집중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높이와 넓이가 다른 두 비이커를 비교할 때 “중심화” 시기에 있는 아동들은 높이만을 비교하거나 넓이만을 비교하여 비이커 크기를 판단하는 반면, 탈중심화 시기의 보다 성장한 아동들은 높이와 넓이를 모두 비교 요소로 삼는 인지적 유연성을 보인다. 이것을 언어 교육에 적용하면, 하나의 사물에 하나의 이름만이 가능하다고 사고하는 경우에는 중심화 단계에 있지만 하나의 사물에 여러 개의 이름이 붙여 질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탈중심화 단계에 있다. 이처럼 탈중심화는 한 개의 사물에 한국어로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영어로도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의 기초를 이루는 인지 개념이 된다. “가역적 사고”란, 예를 들어, 동그란 찰흙 덩어리를 눌러서 긴 타원형으로 만들었을 때 다시 동그란 모양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정신적 작용이다. 따라서 한국어로 이름 붙여진 사물을 영어로 바꾸어 부를 수 있고 그 반대로도 바꿀 수 있기 위해서는 가역적 사고가 가능해야만 한다.

황혜신 (2007)은 영어 학습의 향상도를 설명해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종일제 영어 학원이나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3-5세 아동들을 표집 대상으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들의 영어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영어 노출 기간 ($\beta=.80, p<.001$), 영어권 국가 방문 기간 ($\beta=.26, p<.01$) 및 연령($\beta=.20, p<.05$)으로 회귀분석에 대한 설명력이 전체 변량 중 58%를 차지하였다. 이 중 영어 노출 기간이 가장 설명력이 큰 것($\beta=.80, p<.001$)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어 입력 양이 많을수록 (영어 노출 기간, 영어권 방문 기간),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은 영어 능력을 보유함을 보여 준다.

Donato et al. (2000)은 미국 초등학교에서 일본어를 제2 언어로 학습한 아동들을 분석하였다. 물론 이 연구는 한국어와 영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EFL 환경에서의 제2 언어 연구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어 학습 현장에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표본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6년 정도 일본어를 교육받은 학생들이다. 교사는 일본인 원어민으로서 일본과 미국에서 초등학생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수업은 하루에 15분씩 일 주일 동안 5회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제2 언어로서의 일본어가 노출된 전체 시간은 약 285 시간이었다 (참고: 한국 초등학교 약 204시간). 그 후 학습자들의 일본어

말하기를 평가했는데, 초급에서 중간 정도(novice-mid)의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EFL 환경에서는 충분한 입력 양이 없으면 원어민과 같은 수준으로 언어를 학습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병민 (2004)은 캐나다의 불어 몰입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2 언어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노출이 되었는지의 집중도를 제2 언어 학습의 주요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불어 교육을 할 때 일 주일에 3-4회 등으로 분산 노출시키지 않고 다른 과목을 가르칠 때에도 불어를 사용하는 몰입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불어 유능성은 매우 향상되었으며 향상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치원 때부터 몰입교육을 받은 아동 집단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몰입교육을 받은 아동들 간에 성취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제2 언어 학습이란 시작 시기 자체보다 언어 노출 집중도(노출 강도, 노출 양)가 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연령 및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제2 언어 학습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살펴 보았다. 한국과 같은 EFL 환경에서는 연령이 높은 학습자들이 제2 언어 학습에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물들이 있다. 조기에 영어 교육을 받은 아동들의 경우 그 시작 시기가 빠르다는 것 자체가 제2 언어 학습에 주요한 변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자료가 불충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fMRI 연구에서조차도 조기에 영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언어 학습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보여 주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한국의 영어 교육 현장에서는 연령이라고 하는 시작 시기는 영어 능숙도와 큰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대신 학습자의 인지 발달 수준, 입력 양 및 노출 강도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는, 최소한 유아 교육이나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시작 시기/연령보다는 교수 방법 및 입력 양과 입력 강도 등의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4.2 연구 방법 관련 제언

3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초기 영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찬반의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요인들은 연구 방법상의 문제점을 기초로 설명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중 언어 아동”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들이 어떤 언어적, 가정적, 개인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Goldstein (2006)이 제안한 대로, 3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제2 언어에 노출 및 습득이 되기 시작한 아동들과 3세 이후에 제2 언어를 학습하게 된 아동으로 나누고 각각을 “동시 습득 이중 언어자”와

“연속 습득 이중 언어자”로 세분화해야 한다. 또한 외국 생활 경험유무와 제2 언어에 노출된 기간 및 부모와 형제들의 언어 종류 및 유창성 정도 등도 이중 언어 아동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이 보다 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필수적인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교하게 정립된 이중 언어 아동의 정의를 바탕으로 표본 배경에 따라 각각의 언어 발달 모형을 제시하는 과업이 필요하다. 이 같은 과제는 결국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양극화 논쟁으로 점철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논쟁이 아니라 학습 배경에 따라 강화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 내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조기 영어 교육의 장단점을 찾아내기 위해 영어 교육을 받은 아동들의 한국어 능력을 한국어만을 사용하는 아동들과 비교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이중 언어 아동들과 단일 언어 아동들을 비교 분석한다는 것은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 언어 아동이 한국어와 영어를 각각 사용하는 두 명의 단일 언어 아동의 합산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두 집단 중 어떤 집단도 한국어를 비교하는 데에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 아동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 발달 경로가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만을 사용하는 아동들 역시 단일 언어 아동들만의 고유한 언어 발달 경로가 있다. 그러므로 이중 언어 아동들의 언어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습득한 환경에 따라 각각의 집단을 나누어 이들 간을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중 언어 아동들의 언어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서 단일 언어 아동과 비교하는 경우, 이중 언어 아동의 “언어 문제”가 균형 잡힌 이중 언어자로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산출될 수 있는 과도기적 중간 언어 형태인지 아니면 언어 장애로 가는 언어 발달 지연 및 이상 현상인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기존의 언어 검사 도구 역시 단일 언어 아동 집단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것이므로 이중 언어 아동 대상의 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중 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단일 언어 아동과의 비교 분석이나 기존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자발화 분석을 기초로 습득 배경에 따른 이중 언어 아동들 간의 비교를 하거나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이중 언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언어 검사 도구를 개발해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중 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지능을 측정하는 경우 기존의 지능 검사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단일 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능 검사 도구이기 때문에 이중 언어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를 검사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신뢰성이 떨어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카프만의 한국어판 지능 검사 도구”의 경우 검사 문항이 “문화적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¹¹⁾ 단일 언어 아동들을 표본으로 표준화한 검사 도구라는 점에서

11) “아동의 어휘력 혹은 언어 능력의 영향을 최소화 시키도록 개발하여 가능한 모든 문화권에 공유된 자극물을 사용하여 검사 문항이 문화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곽금주, 2002).

이 또한 적절한 검사 도구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이중 언어 아동의 언어 자료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동이 자율적으로 발화한 언어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인 자발화 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조기 영어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외국의 연구 결과를 원용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 결과를 참조 자료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없다. 그러나 외국은 일반적으로 우리와 언어 습득 상황이 매우 다르며 무엇보다 언어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어와 서반아어 사용자 아동들의 사례가 많이 인용되는데, 무엇보다 서반아어와 영어의 조합은 한국어와 영어의 조합과는 어족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관련 두 언어 간에 상호 긍정적인 전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언어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이 있으므로 외국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의 조기 영어 교육 연구는 결국 한국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어 학습 환경을 기초로 하여 이를 세분화하고 각각의 환경에 따라 어떤 언어 발달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종단으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조기 영어 교육과 관련된 논쟁 중 습득 시기와 연구 방법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 보고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모국어 습득과 제2 언어 습득에서 결정적 시기 가설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모국어 습득에 서와는 달리 제2 언어 습득에서는 이 가설이 타당함을 보여 주는 기존 연구는 거의 없음을 알았다. 오히려 인지 능력에서는 나이가 든 학습자일수록 유리한 측면도 있음을 보았다. 다음으로 국내 상황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습득 연령과 연구 방법상의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 가야 할지를 논의하였다.

한국과 같이 영어를 제2 언어로 학습하는 EFL 환경에서는 학습 연령보다는 노출 시간이 나 집중도 및 인지 발달 수준 등이 영어 능력 향상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본다. 연구 방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표집된 아동들의 언어적 배경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단일 언어 아동과 비교하기보다는 자발화 분석 등을 시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중 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언어 및 지능 검사 도구가 조속히 제작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이런 사항들이 잘 준수되면 추후 연구들은 과열된 조기 영어 교육의 그릇된 신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곽금주. (2002). *아동심리 평가와 검사*. 서울: 학지사.
- 김정오. (2001). 암묵인지와 명료인지: 그 증거와 평가. *2001년도 한국심리학회 추계 심포지움: 암묵적 및 명시적 심리과정 - 연구와 응용* (pp. 1-16). 한국심리학회.
- 노용균, 채희락, 이현우, 김성혜, 이하원, 이천우. (2009). *조기 영어교육 실태 및 적절성에 관한 연구: 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교육과학기술부 위탁 과제.
- 박민영. (2006). *한국어 영어 이중 언어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아. (2010). *아동발달*. 서울: 창지사.
- 신의진. (2002). 조기 교육 발달과 발달병리적 문제. *한국 조기 교육의 현황과 과제* (pp. 29-42). 한국 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 우남희. (2002). *영유아에 대한 조기 영어 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유아 교육 정책과제.
- 우남희, 김현신. (2004). 아동의 지능, 보존개념의 발달과 영어 학습과의 관계분석. *한국아동학회지*, 25(1), 1-12.
- 이병민. (2004). *조기 영어 교육 효과가 있는가?!*. 녹색평론.
- 이수복, 심현섭, 신문자. (2007). 취학 전 이중 언어 아동의 비유창성 특성 연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12(2), 296-314.
- 이승복, 연운경, 윤효운, 정관진. (2004). 이중언어의 습득 시기와 산출: fMRI.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3), 117-135.
- 이정모, 김문수, 김민식, 유명현, 김정오, 변은희, 박태진, 김성일, 이광오, 김영진, 이재호, 신현정, 도경수, 이영애, 박주용, 조은경, 최상섭, 곽호완. (1999). *인지심리학*. 학지사.
- 이하원. (2008). *이중언어 환경과 모국어 발달: 유아 영어교육의 오늘과 내일 2*. 제24회 유아 교육 학술대회.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 임동선. (2001).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품사별 오류유형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신. (2007). 유아의 조기 영어 교육과 이중언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6(4), 699-710.
- Bain, B. (1996). *Pathways to the peak of mount Piaget and Vygotsky: Speaking and sognizing monolingually and bilingually*. Rome: Bulzoni Editore.
- Baker, C. (2006). *A parents' and teachers' guide to bilingualism*. Cleved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
- Bialystock, E. (1991). *Language processing in bilingual childr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alystok, E. (1997). The structure of age: In search of barriers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econd Language Research*, 13, 116-137.
- Bialystok, E. (1982).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ing and using linguistic forms. *Applied Linguistics*, 3, 181-206.
- Bialystok, E. & Hakuta, K. (1999). Confounded age: Linguistic and cognitive factors in age differences for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D. Birdsong (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pp.161-181). Lawrence Erlbaum.
- Bialystok, E. & Miller, B. (1999). The problem of ag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fluences from language task and structure.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2, 127-145.
- Birdsong, D. (ed) (1999).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Lawrence Erlbaum.
- Birdsong, D. (ed) (2006). Age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processing: A selective overview. *Language Learning*, 56, 9-49.
- Birdsong, D. & Molis, M. (2001). On the evidence for maturational constraints in second-language acquisit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4, 235-249.
- Bongaerts, T. (2005). Introduction: Ultimate attainment and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for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RAL*, 43, 259-267.
- Bongaerts, T., Planken, B. & Schils, E. (1995). Can late learners attain a native accent in a foreign language? A test of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In Singleton, D., Lengyel, Z., *The age factor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30 - 50).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Bongaerts, T., van Summweren, C., Planken, B. & Schils, E. (1997). Age and ultimate attainment in the pronunciation of a foreign 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9, 447-465.
- Brown, R. (1958). *Words and things*. The Free Press.
- Brown, R. (2007).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Pearson Longman.
- Campbell, R., & Sais, E. (1995). Accelerated metalinguistic (phonological) awareness in bilingua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3, 61-68.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 Christina, S. (2002). The effect of form similarity on bilingual children's lexical development. *Bilingualism Language Cognition*, 5(2), 93-107.
- Crain, S. & Thornton, R. (1998). *Investigations in universal grammar: A guide to experiments on the acquisition of syntax and semantics*. The MIT Press.
- Crain, S. & Lillo-Martin, D. (1999).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 theory and language acquisition*. Blackwell.
- Curtiss, S. (1977). *Genie: A psycholinguistic study of a modern-day wild child*. New York: Academic Press.
- Curtiss, S. (1988). *The case of Chelsea: A new test case of the critical period for language acquisiti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Daiz, R. M., Padilla, K. A. & Weathersby, E. K (1991). The effects of bilingualism on preschoolers' private speech.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 377-393.
- DeKeyser, R (2000). The robustness of critical period effect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2, 493-533.
- DeKeyser, R. & Larson-Hall, J. (2005). What does the critical period really mean? In J. Kroll & de Groot (eds.), *The handbook of bilingualism: Psycholinguistic approaches*. Oxford University Press.
- Donato, R., Tucker, G. R., Wundthayagorn, J. & Legarashi, K. (2000). Converging evidence: Attitude, achievement, and instruction in the later years of FLES. *Foreign Language Annals*, 33(4), 377-393.
- Eubank, L. & Gregg, K. R. (1999). Critical period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David et impera. In D. Birdsong (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pp. 65-99).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lege, J. E. (1999). Age of learning and second language speech. In D. Birdsong (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pp. 101-132).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lege, J. E., Yeni-Komshian, G. & Liu, S. (1999). Age constraints on second language learning. *Journal of Memory & Language*, 41, 78-104.
- Gardner, R. & Lambert, W. (1972).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Newbury House.
- Gathercole, V. C. M (2002). Monolingual and bilingual acquisition: Learning

- different treatment of that trace phenomena in English and Spanish. In D. K. Oller (ed.), *Language and literacy in bilingual children* (pp. 220-254).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279-790.
- Goldstein, B. A. (2006). Clinical implications of research on language development and disorders in bilingual children. *Topic in Language Disorders*, 26(4). 305-321.
- Guasti, M. T. (2002). *Language acquisition: The growth of grammar*. The MIT Press.
- Guo, K. (2005). Developing in a new language: Speaking setting. *Asutr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30, 38-44.
- Harley, B. & Wang, W. (1997).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where are we now?* In A. de Groot & J. Kroll (Eds.), *Tutorials bilingualism* (pp. 19-52). Lawrence Erlbaum.
- Herschensohn, J. (2000). *The second time around: Minimalism and L2 acquisition*. John Benjamins.
- Herschensohn, J. (2007). *Language development and 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yltenstam, K & Abrahamsson, N. (2003). *Maturational constraints in SLA*. In C. Doughty & M. Long (Eds.), *The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539-588). Blackwell.
- Jia, G. & Aaronson, D. (1999). Age differen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 dominant language switch and maintenance hypothesis. *Proceedings of the 23rd Annual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131-161.
- Johnson, J. S. & Newport, E. L. (1989). Critical period effects in language learning: The influence of maturational state on the acquisition of England as a second language. *Cognitive Psychology*, 21, 60-99.
- Kim, K. N. Relkin, K. M. & Hirsch, J. (1997). District cortical areas associated with native and second language. *Nature*, 388, 171-174.
- Krashen, S. D. (1975). The critical period for language and its possible base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263, 211-224.
- Krashen, S. D. (1981).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Pergamon.
- Lenneberg, E. H. (1967).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Wiley.
- Long, M. (1990). Maturational constraints on language development. *Studies in*

-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2, 251-285.
- Long, M. (2007). *Problems in SLA*.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cWhinney, B. (1999). *The emergency of languag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yberry R. I. & Lock, E. (2003.) Age constraints on first versu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Evidence for linguistic plasticity and epigenesis. *Brain and Language*, 87, 369-384.
- Montrul, S. A. (2008). *Incomplete acquisition in bilingualism: Reexamining the age factor*. John Benjamins.
- Montrul, S. A. & Slabakova, R. (2003). Competence similarities between native and near native speakers: An investigation of the Preterite/Imperfect contrast in Spanish.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5(3), 351-398.
- Moyer, A. (1999). Ultimate attainment in L2 phonology: The critical factors of age, motivation, and instruc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1(1), 81-108.
- Newport, E. (1990). Maturational constraints on language learning.: The BAF project In C. Munoz (ed.), *Age and the rate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pp. 1-40).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O'Grady, W. (1997). *Syntactic developmen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Grady, W. (1999). Toward a new nativism.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1(4), 621-633.
- O'Grady, W. (2003). The radical middle: Nativism without universal grammar. In C. Doughty & M. Long (eds.), *The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43-103).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O'Grady, W. (2010). Emergentism. In P. Hogan (ed.),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scien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yama, S (1978). The sensitive period and comprehension of speech.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16, 1-17.
- Patkowski, M. (1980). The sensitive period for the acquisition of syntax in a seconde language. *Language Learning*, 30, 449-472.
- Penfield, W. (1953). A consideration of the neurophysiological mechanism of speech and some educational consequence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Academic of Arts and Sciences*, 82, 199-214.
- Penfield, W. & Roberts, L. (1959). *Speech and brain mechan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erson B. Z., Fernandez, S. C. & Oller, D. K. (1995). Cross-language synonyms in the lexicons of bilingual infants: One or two? *Journal of Child Language*, 22, 345-368
- Pinker, S. (1991). Rules of language. *Science*, 253, 530-535.
- Pinker, S. (1994). *The language instinct*. New York: Morrow.
- Schouten, A. (2009).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Support, challenge and reconceptualization. *Working Papers in TESOL and Applied Linguistics*, 9(1). Columbia University.
- Scovel, T. (1988). *A time to speak: A psycholinguistic inquiry into the critical period for human speech*. Newbury House.
- Singleton, D. & Ryan, L. (2004). *Language acquisition: The age factor (2th ed.)*. Multilingual Matters.
- Singleton, D & Lengyel, Z. (Eds.) (1995). *The age factor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Snyder, W. (2007). *Child language: The pragmatic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 Tomasello, M. & Bates, E. (Eds.) (2001). *Language development..* Blackwell.
- White, L. & Genesee, F. (1996). How native is near-native? The issue of ultimate attainment in adul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econd Language Research*, 12, 233-265.
- Wong-Fillmore, L. (1991). When learning a second language means losing the firs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 323-346.
- Young-Scholten, M. (2002). Orthographic input in L2 phonological development. In Burmeister, P., Piske, T. & Rohde, A. (2002). *An integrated view of language development: Papers in honor of Henning Wode* (pp. 263-279). Trier: Wissenschaftlicher Verlag Trier.

이하원

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전화: 018-225-0915

이메일: hawonlee@hotmail.com

채희락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 89번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전화: 031-330-4293

이메일: hrchae@hufs.ac.kr

Received on 19 July, 201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31 August, 2011

Accepted on 6 September, 2011